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67

한글 성명: 닷쑤권민

배려

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듯, 당
신도 살고 싶겠다. 내가 상처 받는 일을
무서워 하듯 당신도 무섭겠다. 이렇게
남을 생각해 주는, 이해해 주는 마음이
바로 배려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나는
이 배려라는 마음이 아름다운 줄도 몰
랐고 갖춰야 할 줄도 몰랐다.
나는 집에서 누워서 말내로 태어났다.
아버지와 오빠는 의사이고, 언니는 칼
나가는 영어 선생님이시다. 이런 집에서
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었고,
다 내 마음이었다.
그런 나는 학교 시각할 때부터 가난
한 아이들을 보면 지겹다고 느꼈다. 왜
그 아이들은 옷도, 얼굴도, 존도 깨끗해
보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못했었다. 그런
애들이랑 만지기는 커녕 상대도 하고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5A120167

한글 성명: 멧노란민

싶 지 않 았 다 .
 또 한 나 는 학 교 에 서 항 상 전 교 1 등
 이 었 다 . 선 생 님 들 의 칭 찬 과 사 랑 을 받 아
 온 나 는 공 부 를 잘 못 하 는 아 이 들 을
 무 시 해 버 렸 다 . 어 려 운 문 제 들 을 못 풀
 러 서 조 금 도 와 달 라 고 하 는 친 구 들 의
 부 탁 을 못 들 은 척 했 다 . 지 금 와 서
 말 하 기 는 아 주 속 스럽 지 만 나 는 많 이
 이 기 적 이 었 다 .
 그 러 다 어 느 날 , 우 리 학 교 로 새 로 운
 선 생 님 이 오 셧 다 . 그 선 생 님 은 우 리 방
 단 임 선 생 님 이 되 셧 다 . 선 생 님 들 의 사 랑 을
 받 아 온 나 는 이 중 학 교 3 학 년 이 되 어
 서 야 단 임 선 생 님 의 사 랑 을 받 지 못 했 다 .
 가 장 괴 로 운 일 은 나 를 방 장 으 로 안
 뵈 히 는 일 이 었 다 .
 우 리 방 친 구 들 이 나 를 비 웃 고 방 장
 으 로 뽐 힌 친 구 를 축 라 해 극 고 있 는
 것 을 보 며 자 존 심 이 바 닥 에 떠 들 어 진 경
 도 로 상 했 다 . 나 는 드 디 어 선 생 님 에 게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167

한글 성명: 멧노킨민

가서 나를 안 뵈는 이유를 물어버렸
다. "저는 전로 스승이고, 매해 방랑
과리를 맡았는 데요. 그리고 저희 아빠도
학교에서 퇴학당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
셨는데 왜 저를 안 뵈는 건가요?"
떨린 목소리만 들렸다.
선생님께서 우리 방에 나랑 사이 좋
은 친구가 몇 명 있냐고 물으셨다. 나
는 나 같이 공부 잘 하는 아이 4
5명 정도 있다고 했다. 그리고 선생님
께서 "너한테 공부에 대한 부탁을 할
때마다 거절했다면서?" 라고 물으실 때
나는 거부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
는 상황에 빠졌다.
"그래서 네가 방랑이 되면 안 되는
거야. 너한테 《배려》라는 리더의 자
격이 없어."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. 선
생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
스로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. 나
에게 "배려심"이 없다니, 피가 나오게
도 맞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467

한글 성명: 멧노리민

는 말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다. 아픔
 답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나의 일
 복였다. 태어나서부터 스스로에 대해서
 처음으로 항피하다고 느꼈다.
 그날 밤, 잠도 안 오고 "배려"라는
 말만을 생각해 보았다. 나는 내가 부가
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여해해
 극지 못했고, 내가 공부 잘 해서 나 보
 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 버렸다. 나는
 잠도 안 오는 김에 편지글 썼다. 하나
 는 단임선생님께 "배려"에 대해 **가** **고**
 쳐 꼭 써서 감사하라는 편지다. 또한 이
 동안 망망인 나에게 큰 소리로 혼났고
 내 무시글 당해온 친구들에게 "내가
 이 동안 배려해 극지 못해서 미안하다"
 는 편지들을 썼다.
 그리고 다음 날 일찍 학교에 가서
 그들의 자리에 편지글 놓고, 부끄러워서
 그날은 **땡땡**이 쳤다. 그 다음 날, 내가
 고실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나에게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SA120467

한글 성명: 멧노진민

따 뜻 한 미 소 글 지 으 매 * 관 창 다 * 고 말
 했 다 . 나 는 배 려 해 주 지 않 았 지 만 그 들
 은 나 를 배 려 해 준 다 는 생 각 에 눈 물 이
 글 씩 이 었 다 . " 배 려 " 라 는 단 어 를 늘 기
 억 하 며 남 의 상 황 을 이 해 해 주 려 고 노
 령 했 다 . 그 다음 학 기 에 는 내 가 방 광 이
 다 시 되 었 다 .
 나 는 선 생 님 이 말 씀 해 주 신 리 더 의
 과 격 인 배 려 라 는 말 을 엇 지 못 한 다 . 지
 금 도 나 는 어 려 운 집 의 아 이 들 에 게 고
 육 해 주 는 일 에 도 와 주 고 있 다 . 지 금
 코 로 나 - 19 상 황 에 서 그 일 은 참 시 멎
 추 고 있 지 만 나 는 쿼 런 틴 센 터 에 서 봉
 사 하 고 있 다 . 지 금 처 럼 어 려 운 상 황 에 는
 우리 모 두 가 서 로 에 게 배 려 해 주 매 도
 와 줄 필 요 가 있 다 . 그 래 야 이 상 황 을
 이 개 널 숙 있 을 것 이 다 .
 인 간 은 " 배 려 " 를 가 지 는 스 간 미 움 이
 사 라 지 고 사 랑 의 광 미 꽃 이 피 어 난 다 . 나
 도 줄 아 라 듯 그 도 줄 아 라 겠 고 , 나 도 힘

제 7 회 동남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6-SA120462

한글 설명: 몇노천민

어	하	듯	그	도	심	어	하	겠	다	고	배	려	해	국	만
세	상	이	얼	마	나	평	화	로	워	질	까?	우	리	는	역
사	속	에	도	"	배	려	"	없	어	서	그	능	극	의	목
심	,	이	기	심	이	다	른	인	간	들	의	피	,	땀	, 눈
물	들	을	가	려	갔	다	는	것	을	볼	수	있	다	.	
나	는	그	어	떤	순	간	에	도	"	배	려	"	를	마	
음	속	에	서	놓	지	않	고	,	내	안	세	상	의	평	
화	로	시	각	하	여	내	극	변	사	람	들	에	게	도	
평	화	로	만	들	어	극	려	고	노	력	할	것	이	다	.